즉시 배포용: 2016년 4월 20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새로운 세대의 환경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들을 공원 이니셔티브와 연결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의 4학년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주립공원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다

빈민가 학생들의 주립공원 탐방을 늘리는 교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주 예산에 500,000달러가 포함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학생들에게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려주고 뉴욕주 곳곳에 자리한 공원 및 역사적인 장소를 알리기 위해 "Connect Kids to Parks" 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환으로, 뉴욕은 NPS(National Park Service)와 협력하여 2016년에 모든 4학년 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주립공원 주간 무료 입장 혜택을 확대하고 주립공원 및 역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수송을 돕기 위한 교부금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보다 어린 뉴욕주민들이 자신들의 뒤뜰에 있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을 즐기고 새로운 세대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2016년, 환경보존부가 운영하는 주간 이용 구역과 뉴욕주립공원들은 4학년생이 차량에 타고 있다면 모든 주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출입증을 제시할 경우 Every-Kid-In-A-Park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료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과 최대 3인의 성인이 하우스 투어 요금 대신 주립 역사 유적지에서도 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sparks.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해 초 Obama 행정부는 모든 4학년생과 그 가족들에게 일년간 모든 국립공원과 기타 연방 토지 및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6-17년도 주 예산에는 더 많은 K-12학년 학생들, 특히 빈민가 학생들을 주립공원과 국유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500,000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뉴욕주의 강화된 Environmental Justice 프로그램의 일부로, 주립공원과 환경보존부는 4,000명의 학생들을 자연센터와 역사적인 장소에서

실시되는 주립공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 수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환경보존기금을 통해 학군에 직접적인 교부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천혜의 아름다운 국유지와 물길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Every Kid in a Park를 통해서 4학년생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미국 Sally Jewell 내무부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4학년생은 뉴욕주 거주 학생들을 포함해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충족시키고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국토, 수로와 야생동식물들과 평생을 함께 하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레크리에이션역사보존부의 Rose Harvey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원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이들이 마음과 몸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의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지평선을 확대하겠다는 이 특별한 다짐으로 뉴욕주의 환경 지킴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실현되도록 힘써주신 많은 파트너들께 감사 드립니다."

환경보존부의 Basil Seggos 커미셔너 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교실이나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색다른 이니셔티브는 모든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을 존중하고 다시 환경에 되돌려줄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줍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Denise Ryan 의회 및 대외관계 부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 Kid in a Park 프로그램은 모든 단계의 정부 기관에 걸쳐 협업과 협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뉴욕주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뉴욕주의 4학년생들은 Adirondack 주립공원에서 Fire Island National Seashore와 그 사이에 있는 온갖 자연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atural Heritage Trust는 4학년 입장 허가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분들의 크나큰 후원 덕택에 300,000달러의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Lucy R. Waletzky, MetLife Foundation, Long Island State Parks Foundation, Alfred P. Sloane Foundation, Geraldine R. Dodge Foundation.

MetLife Foundation의 사장 겸 CEO인 Dennis Whi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외에 나가는 것은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합니다.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공원과 국유지와 연결시켜주는 뉴욕주, 프로그램 파트너 및 기타 스폰서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방 공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면 앞으로 오랫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는 220,000여명의 4학년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11세 이전에 자연과 교류를 하는 아이들은 자연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크고, 많은 주립공원과 역사적인 장소들이 4학년생들에게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4학년 사회 핵샘 커리큘럼은 공민학, 커뮤니티 및 뉴욕주 역사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뉴욕주립공원을 방문하기에 꼭 맞는 아주 완벽한 학년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